

OECD DAC 각료급회의(HLM) 개최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 권 울 아시아태평양본부 개발협력팀장
(ykwon@kiep.go.kr, Tel: 044-414-1060)
- 이주영 아시아태평양본부 개발협력팀 전문연구원
(jylee@kiep.go.kr, Tel: 044-414-1253)

차 례 ●●●

1. 개요
2. OECD DAC 각료급회의(HLM)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
3. 국제사회의 ODA 지원현황 및 특징
4. 정책적 시사점

주요 내용 ●●●

- ▶ 지난 2016년 2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는 제50차 각료급회의(HLM: High Level Meeting)를 개최하여 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채택 후 DAC의 기여방안을 모색하고, 개발재원 촉정을 위한 ODA 통계보고 방식과 기본 원칙에 대해 합의함.
 - 이번 각료급회의는 2030년을 목표로 지속가능개발의제 이행을 위한 DAC의 역할과 혁신방안을 모색하고, 개발재원의 촉정과 DAC의 통계시스템 현대화작업 관련 회원국 공동의 노력을 재확인함.
 - HLM 공식 성명(communique)은 ODA 현대화 논의의 기본 원칙을 공표하고, 기존의 보상지원, 차관, 지분투자, 보증 등 무상원조 이외의 다양한 금융수단을 증여등가액(grant-equivalent, 즉 ODA 인정액)으로 계상하기로 결정하며, 이는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개도국 지원수단을 ODA에 적극 활용하기 위한 것임.
- ▶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대개도국 지원금액이 6천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대개도국 개발재원 중 65%를 차지하는 민간재원이 총 4,053억 달러로 가장 많고, 29%에 해당하는 1,783억 달러는 공적개발원조(ODA)의 형태로 지원됨.
 - 금번 HLM 회의에서는 민간부문의 개발활동 참여를 촉구하기 위한 공적 부문의 지원액을 ODA로 계상하기로 합의하고, 2018년부터 개발재원 측정방식을 증여등가액 방식으로 전환하여 공적 지원 중 일부 보증, 지분투자, 양허성이 낮은 차관 등을 ODA의 일부로 계상하기로 함.
 - 기존의 ODA는 최빈국(LDCs)과 저소득국(LICs), 소규모 도서국가(SIDS), 개발도상 내륙국(LLDCs), 취약국 등을 대상으로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고, 평화안보 분야의 ODA 범주를 명확히 제시함.
- ▶ HLM 공식 성명에서는 SDGs 달성을 위해 다양한 개발협력 주체들의 파트너십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으며, OECD 차원에서 SDGs 이행을 위한 주류화 작업에 국내 SDGs 이행 및 주류화를 위한 체제를 마련해나가야 함.
 - 각 부처는 연도별 ODA 시행계획을 통해 정합성 있는 정책과 전략목표에 부합하는 자원조달 계획을 수립하고, SDGs 이행을 위한 범정부적 추진기구를 운용해나가야 함.
 - 이를 기반으로 SDGs 이행 첫해인 2016년 말 DAC 회원국과 경험을 공유하고, 2020년까지 해당 목표를 꾸준히 달성할 수 있도록 범부처간 공동의 노력이 필요함.
 - 우리나라는 개발협력 4대 구상 등 SDGs 달성을 위한 본격적인 이행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ODA 전략사업의 시범국가 도입 및 거점국가를 통한 확산 계획을 제시해나가야 할 것임.
 - ODA의 지역적 배분과 관련하여 최빈국에는 기존 ODA 지원방식을 확대하고, 민간재원 수요가 높은 중소득국에 대해서는 ODA를 활용한 민간금융수단(PSI)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함.

1. 개요

■ 2016년 2월 18~19일 양일간 파리에서 개최된 제50차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각료급회의(HLM: High Level Meeting)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위한 개발협력의 역할과 개발재원 확대방안 등 주요 현안이 논의됨.

- 본 회의는 선진공여국의 ODA 비중이 감소함에 따라 2030년을 목표로 지속가능개발의제 이행을 위한 DAC의 역할과 혁신방안을 모색하고, 개발재원의 측정과 DAC의 통계시스템 현대화작업 관련 회원국 공동의 노력을 재확인함.
- 회의에서 최종 채택된 2016 DAC HLM 공식 성명서는 최근의 국제적 합의를 반영하여 개선된 DAC의 ODA 및 총공적개발지원(TOSSD: Total Official Suppor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통계보고 시스템에 대한 논의사항을 담고 있음.
- 2015년 개최된 대표적인 국제적 합의는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와 신기후체제합의, 개발재원 관련 아디스아바바 행동의제(AAAA), 세계재난위험경감총회 등이 있음.

■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채택 이후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목표가 제시된 시점에 DAC 회원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현 ODA 지원추이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제적으로는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olicy coher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을 강조하는 가운데, OECD 차원에서 SDGs 이행의 주류화(mainstream)를 위해 동료검토(peer review)를 통한 상호 점검 및 정책일관성 제고 등 DAC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
- 한국의 경우 2016년부터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년)이 시작되고, 연말에는 DAC 동료검토(peer review)가 예정되어 있어 국제규범 준수, 정책수립, 통계관리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이행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특히 HLM 공식 성명서에서 제기된 민간금융수단(PSI)의 활용과 총공적개발지원(TOSSD) 통계 측정, 난민 등 평화 안보와 관련된 다년간 지원계획 등에 대한 대응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나가야 함.

■ 본 보고서는 DAC 각료급회의의 주요 의제들을 토대로 최근 발표된 ODA 확정 통계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개발협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ODA 확정 통계는 최근 공여국간에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ODA의 최빈국(즉, 수요가 가장 높은 국가에 대한) 지원 비중, 수원국의 소득수준별로 차등 적용되는 양허성수준 설정, 민간 자금의 규모, 민간재원 활용을 위한 지원수단 등을 포함하고 있음.
- 특히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와 신기후체제합의, 개발재원 관련 아디스아바바 행동의제(AAAA)에 대한 각국의 입장과 대응, OECD DAC의 향후 원조전략 점검이 시급한 시점임.

2. OECD DAC 각료급회의(HLM)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

■ 2016년 2월에 개최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각료급회의(HLM)에서 회원국들은 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채택 후 DAC의 기여방안을 모색하고, 개발재원 촉진을 위한 ODA 통계보고 방식과 기본 원칙에 대해 합의함.

- HLM에는 DAC 회원국 외에도 브라질, 중국 등 주요 15개국 및 AfDB, WB, IMF, UN, 글로벌파트너십(GPEDC) 의장국, OECD 기업·산업자문위원회(BIAC),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¹⁾ 빌앤멜린다 게이츠 재단 등이 참여하여 DAC의 역할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함.
- DAC은 HLM 공식 성명(communique)을 통해 지속가능의제 이행을 위한 DAC의 역할을 제고하고, 민간금융수단(PSI) 관련 ODA 현대화 논의 및 평화안보 분야의 ODA 통계보고 지침을 개정하는 데 합의함.
- 지난 3월에는 HLM에 대한 후속조치로 DAC 혁신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패널 구성, 환경관련 개발재원, 민간금융수단, 평화 및 안보 지원, TOSSD 측정과 모니터링 메커니즘, 혼합금융 등에 대한 결정사항을 발표함.²⁾

■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민간금융수단(PSI)의 ODA 측정방향과 관련하여 보상지원(reimbursable grant), 차관, 지분투자, 보증 등의 방식으로 공여국이 민간부문에 직접 제공하는 재원의 경우 개도국 발전을 위해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PSI 제공을 위한 공적지원 일부를 ODA로 인정하기로 함.

- 민간금융수단(PSI)과 관련하여 PSI 제공기관의 적격성이나 위험 프리미엄의 적정 수준, ODA의 과대계상 문제 등 다양한 위험요소가 제기되어왔으나, 기본적으로 PSI 지원액의 ODA 통계는 증여등가액(인정액) 방식을 적용하고, 기관별·수단별 두 가지 측정방식을 공여국이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함.
- PSI 관련 ODA의 통계보고는 투명성을 강조하여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인정될 수 있으며, ODA 귀속분 산출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통계작업반(WP-STAT) 회의에서 제안서를 발전시킬 예정임.
- DAC 사무국은 DAC에 주기적으로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최종적으로 2016년 10월 고위관료회의(SLM: Senior Level Meeting)에서 전체 회원국의 비준을 받을 계획임.

■ 또한 DAC 회원국은 개도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평화안보 분야의 ODA 범주를 명확히 제시하고, 이와 관련한 통계지침을 개정하였으며, 기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통계지침 및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2016년 말까지 논의를 지속하기로 함.

- 평화안보 분야에서 ODA 적격성을 갖춘 항목으로는 △ 수원국의 안보체계 관리 및 개혁 지원 △ 사회복귀(reintegration) 및 소형무기(SALM) 통제, 민간 대상 기뢰 제거 △ 민간 평화유지활동 및 국제 평화안보활동 참여(국제기구 지원 포함) △ 테러 예방 활동 등이 포함.
- 주요 항목에 대해서는 셰이프가드 조항을 설정하여 개도국 경제사회발전 지원의 1차적 목적을 벗어나지 않도록 엄격한 감독을 요구하고, UNPKO 활동의 ODA 인정 수준을 추가 검토하기로 함.

1) BIAC: Business and Industry Advisory Committee, TUAC: Trade Union Advisory Committee.

2) OECD DAC(2016), "Follow up to decisions at the February 2016 DAC High Level Meeting," DCD/DAC(2016)15.

- 이외에도 난민 관련 지원의 ODA 적격성 및 공여국간 통계보고의 일관성 확보방안에 대해 추후 논의하며, 향후 총공적개발지원(TOSSD)에 대한 개념화 작업을 완료하고, 구체적인 개발재원 측정방법 및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DAC 회원국들은 지속가능개발의제 이행을 위해 민간 등 다양한 개발주체와 파트너십을 제고하고, 개발효과성 원칙이 SDGs 이행의 질적 측면에 기여하기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함.

- 글로벌 파트너십(GPEDC: 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은 2011년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의 후속 플랫폼으로 출범하였는데, 이번 HLM에서는 GPEDC를 통해 더욱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필요로 하는 우선순위 지역을 파악하고, 개발효과성 원칙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함.

- 제1차 글로벌 파트너십 HLM은 2014년 4월 멕시코에서 개최되었으며, 제2차 글로벌 파트너십 HLM은 2016년 11월 케냐에서 개최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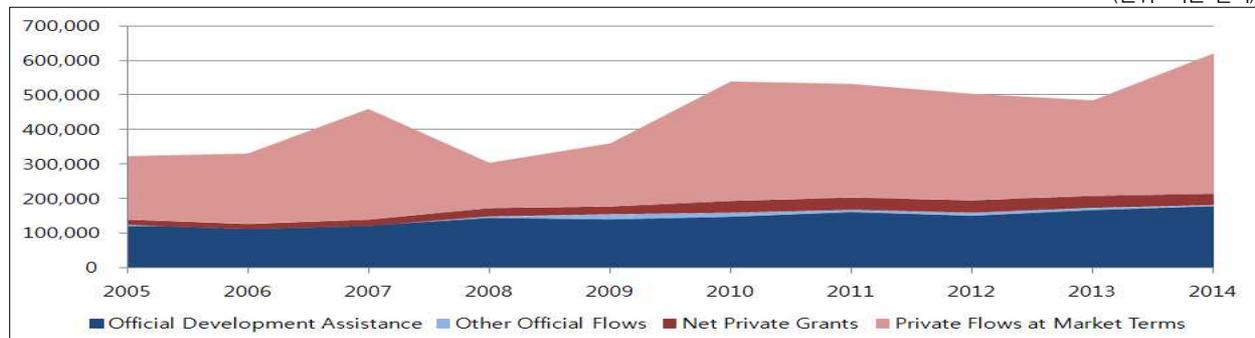
3. 국제사회의 ODA 지원현황 및 특징

가. 개발재원 규모 증가

■ [개발재원 지원추이]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공여국으로서 OECD에 대개도국 지원액을 보고하는 총 46개 국가³⁾ 및 1개 기구(EU)의 대개도국 지원금액이 최초로 6,000억 달러를 넘어섬.

그림 1. 국제사회의 대개도국 지원 추이(자금 유형별)

(단위: 백만 달러)



주: 순 지출액, current price 기준.

DAC 회원 28개국 및 1개 기구, DAC 비회원국 18개국 포함.

자료: OECD CRS 데이터베이스(stats.oecd.org, 검색일: 2016. 2. 5)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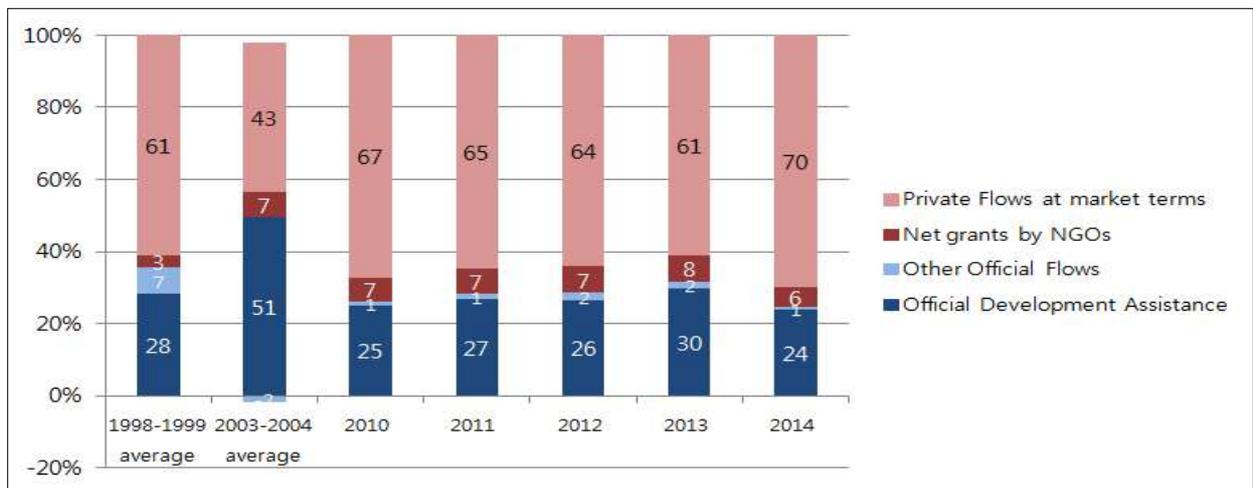
3) OECD CRS(creditor reporting system) 통계보고 국가는 28개 DAC 회원국과 EU를 포함하여,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에스토니아, 헝가리, 이스라엘, 쿠웨이트,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몰타, 루마니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대만, 태국, 터키, 아랍에미리트가 있음.

- 대개도국 개발재원 중 65%를 차지하는 민간재원이 총 4,053억 달러로 가장 많고, 29%에 해당하는 1,783억 달러는 공적개발원조(ODA)의 형태로 지원됨.
- 그 외 NGO 등이 무상으로 지원하는 민간공여(private grants)와 기타공적자금(OOF: other official flows)은 각각 개도국지원 개발재원 총액의 5% (328억 달러)와 1%(33억 달러) 지원됨.
- DAC은 ODA뿐만 아니라 공적수출신용과 같은 기타공적자금(OOF), 민간 재원흐름에 포함되는 보증, 보험, 메자닌 금융, 지분투자 등 다양한 금융수단을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총공적개발지원(TOSSD)으로 측정하는 방안을 모색 중임.

■ [자금유형별 지원 특징] 대개도국 지원 수단으로 공적개발원조(ODA)와 민간자금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개도국 발전을 위한 역할이 확대되고 있으며, 그 외 기타공적자금(OOF)과 민간증여(private grant)는 일부 감소

- 대개도국 지원자금 중 공여국의 ODA 지원액은 유럽재정위기의 여파로 2012년 다소 감소하였다가 2013년, 2014년 연속 증가하였음(그림 1).
-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자금의 유입액은 2010년 3,451억 달러에서 2013년 2,758억 달러로 지속 감소하다가 2014년 4,053억 달러로 급증하였으며, 연도별 편차가 큰 편임.
- 전체공여국 중 DAC 회원국의 개도국 지원금 중 민간재원이 차지하는 부분은 2014년 약 70%를 기록(그림 2 참고)
- 2014년 ODA 외 기타공적자금은 전년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NGO의 지원 등 순수 민간 증여액(net private grant)도 다소 감소

그림 2. DAC 회원국의 재원형태별 개도국 지원 비중



주: 민간재원 규모는 DAC 회원국의 설문조사 결과 반영.
자료: OECD CRS 데이터베이스(stats.oecd.org, 검색일: 2016. 2. 5)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민간재원의 중요성 및 ODA 역할 확대] 금번 HLM 회의에서는 민간부문의 개발활동 참여를 촉구하기 위한 공적 부문의 지원액을 ODA로 계상하기로 합의하고, 민간금융수단(private sector instruments)과 관련된 지원 원칙에 합의

- 이에 따라 기존에 기타공적자금(OOF)으로 구분되던 자금의 일부는 ODA로 계상되며, 전체 재원흐름은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총공적개발지원(TOSSD)이라는 구분하에 통계를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 o 기타공적자금(OOF)은 증여율이 25% 미만인 수출신용, 국내기업 수출지원 개도국 및 국내 투자자 지원금 등을 의미하는데, 향후 2년간의 점진 시기를 거쳐 2018년부터 개발재원 측정방식이 증여등가액(grant-equivalent) 방식으로 전면 확대될 경우 OOF 중 민간자금을 유도하기 위한 공적 지원 중 일부 보증, 지분투자, 양허성이 낮은 차관 등이 ODA의 일부로 계상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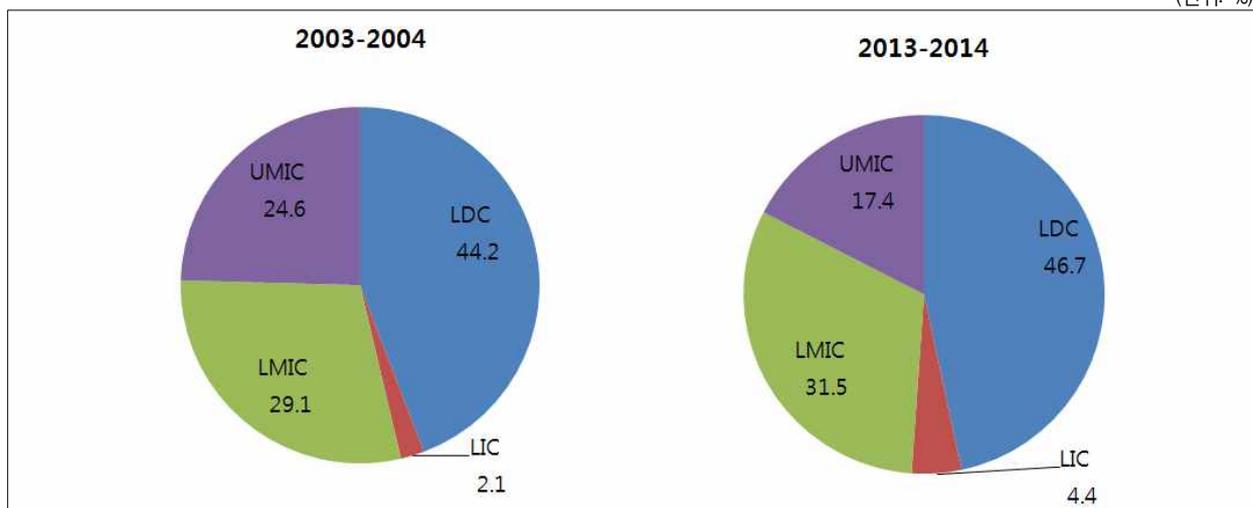
나. ODA 지원 대상국의 선택과 집중

■ [소득수준별 지원 추이] DAC 회원국의 상위 중소득국에 대한 ODA 지원이 지난 10년간 7.0%p 감소하였고, 최빈국, 저소득국, 하위 중소득국에 대한 지원이 각각 2.5, 2.3, 2.4%p 증가

- 특히 최빈국에 대한 지원이 2013~14년 평균 46.7%를 차지하여 가장 높았음(그림 3).
- 전반적으로 최빈국 및 저소득국에 대한 ODA가 집중 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최빈국 지원 총 규모는 증감의 변화가 큼.
- o 최빈국에 대한 DAC 회원국의 ODA 지원총액은 2012년 4,597억 달러, 2013년 5,415억 달러, 2014년 4,647억 달러로 지원 변동폭이 크고 예측성은 낮은 편임(총지출, 고정가격 기준).

그림 3. DAC 회원국의 수원국 소득수준별 ODA 배분 비중(2003~04 평균 vs. 2013~14 평균)

(단위: %)



자료: OECD DAC, Table 26, Distribution of ODA by Income Group.

■ [ODA의 선택과 집중 경향] DAC은 민간재원과 차별화하여 ODA의 지원대상국⁴⁾을 최빈국(LDCs)과 저소득

4) ODA 수원국가 목록은 3년마다 재조정되며, 가장 최근의 DAC 수원국 리스트는 2014~16년 3년간의 통계보고를 대상으로 2015년 1월부터 발효됨. ODA 수원대상국 중 2014 HLM에서 선정된 ODA 집중지원 대상 5개 그룹(LDC, LIC, SIDC, LLDC, 취약국)에

국(LICs), 소규모 도서국가(SIDS), 개발도상 내륙국(LLDCs), 취약국으로 구분하여 지원을 집중하고 2015년부터 각국의 지원전략을 수립하도록 촉구

- EU,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선제적으로 집중지원정책을 수립하였고, 최근 뉴질랜드, 한국, 영국, 미국 등에서 ODA의 필요성이 높은 국가에 대한 정책방향을 수립하였음.
- 특히 2014 HLM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벨기에와 아일랜드는 ODA의 50%를 최빈국에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영국은 원조예산의 50%를 취약국에, 뉴질랜드는 약 60%를 태평양 소도서국에 지원하겠다고 밝힘.
- 한국은 DAC 회의를 통해 향후 5년간(2016~20년) 무상원조(grant)의 50%를 최빈국 및 기타 저소득국에 지원하고, ODA 차관(loan)의 40%는 최빈국에 지원할 것을 공약하였으며, 이러한 국내적 노력을 DAC 회원국과 공유함.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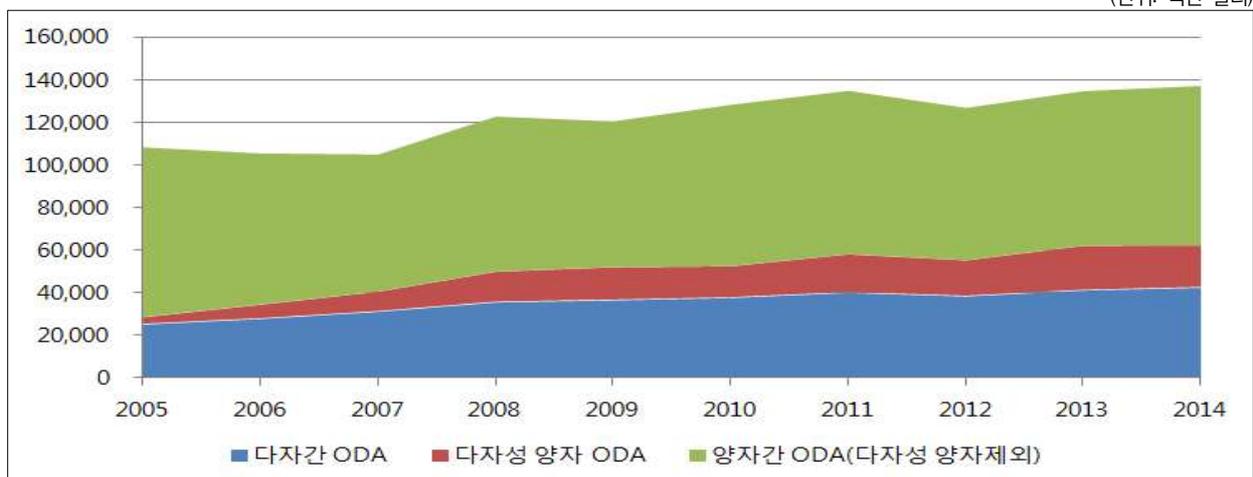
다. 다자성 양자 및 다자간 ODA의 효과적 활용

■ [다자협력의 양적 확대] 2014년 DAC 회원국의 양자간 ODA는 약 947억 달러, 다자간 ODA는 약 413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양자간 ODA 중 다자기구를 활용한 다자성 양자원조(multi-bi aid)는 196억 달러 수준

- 전체 ODA에서 국제기구를 활용한 다자협력 비중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며(그림 4 참고), 2014년에는 다자성 양자원조를 제외한 순수 양자원조 대비 다자협력 비율이 55.45를 나타냄(표 1 참고).

그림 4. DAC 회원국의 다자성 양자(multi-bi)원조 증가 추이(2005~14년)

(단위: 백만 달러)



주: 순 지출액, current price 기준.

자료: OECD CRS 데이터베이스(stats.oecd.org, 검색일: 2016. 2. 5)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포함된 국가는 총 104개국임.

5) OECD DAC(2016), Progress among DAC Members towards Improved Targeting of ODA, DCD/DAC/RD(2016)2/RD1, pp. 3-4.

- 지원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다자기구에 납입하는 순수다자(core) 원조는 최근 전체 원조의 30%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혜 대상국이나 지원 목적을 명시하여 다자기구를 통해 수원국에 지원되는 다자성 양자(multi-bi) 원조는 14%로 증가

표 1. DAC 회원국의 양자 및 다자 협력 지원비중(2005~14년)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총ODA 지원규모	양자간 ODA (다자성 양자 ODA 제외)		다자성 양자 ODA*		다자간 ODA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규모	비중
2005	108,296.4	80,078.2	74%	2,995.3	3%	25,222.9	23%
2006	105,415.5	71,236.5	68%	6,301.4	6%	27,877.6	26%
2007	104,917.5	64,612.7	62%	9,089.0	9%	31,215.8	30%
2008	122,783.9	73,095.3	60%	14,017.2	11%	35,671.5	29%
2009	120,558.0	68,737.8	57%	15,200.4	13%	36,619.8	30%
2010	128,369.4	76,102.0	59%	14,516.5	11%	37,750.9	29%
2011	134,971.5	77,053.3	57%	17,741.0	13%	40,177.1	30%
2012	126,911.2	71,842.8	57%	16,602.1	13%	38,466.4	30%
2013	134,831.6	72,891.9	54%	20,644.5	15%	41,295.2	31%
2014	137,222.1	75,054.1	55%	19,608.7	14%	42,559.3	31%

주: 순 지출액, current price 기준, 28개 DAC 회원국 대상.

* 다자성 양자 ODA는 양자간(bilateral) ODA로 구분됨.

자료: OECD CRS 데이터베이스(stats.oecd.org, 검색일: 2016. 2. 5)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다자협력의 질적 지표 개선] 2013~14년 기간중 DAC 회원국의 GNI 대비 다자원조 비율은 0.06%이며, EU에 대한 지원액까지 포함하면 0.09%로 상승하였음. 공여국은 공동성과평가 네트워크를 통해 다자기구 성과평가 방법 및 활용방안을 제고할 예정

- 한국의 다자원조/GNI 비율은 0.03%로 스페인, 미국 등과 비슷한 수준임.
- 한국은 대외적으로 다자기구 성과평가 네트워크(MOPAN)의 2016년도 의장국으로 선출되었으며, 대내적으로는 2016년 다자원조 전략이 수립됨에 따라 다자원조 정책수립과 성과평가에 있어 긍정적 효과를 기대
- 특히 MOPAN 평가 대상기구 및 지역이 기존보다 크게 확대되고 평가 방법이 변하여, 기존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성공적인 역할 수행이 중요
 - o 기존에는 매년 4~6개 기구를 대상으로 다자기구 성과평가를 실시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2년마다 한 번씩 총 4년 간 30여 개 다자기구를 평가할 계획
 - o 이에 따라 이번 평가 대상국가는 [표 2]와 같이 총 12개로 급증하였으며, 해당 국제기구가 활동하는 수원 대상 국가도 16개로 확대됨.

표 2. 2015~16 MOPAN 평가대상 다자기구 및 수원국 목록

구분	대분류	대상	개수
평가대상 기구	국제금융기구 (IFIs)	- African Development Bank -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 - World Bank	12개 기구
	글로벌 펀드	- Gavi, The Vaccine Alliance - Global Fund to Fight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	
	UN 기구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Joint United Nations Programme on HIV/AIDS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 United Nations Human Settlements Programme -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 United Nations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평가대상 수원국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 라이베리아, 모잠비크, 나이지리아	16개국
	아시아-중동	아프가니스탄, 인도, 이라크, 네팔, 솔로몬제도, 소말리아, 타지키스탄, 베트남	
	중남미	브라질, 콜롬비아, 아이티	
	유럽	몰도바	

주: 다자기구성과평가네트워크(MOPAN) 웹사이트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http://www.mopanonline.org/OurWork/Whodoweassessandwhere/>, 검색일: 2016. 3. 5).

4. 정책적 시사점

■ HLM에서 합의된 SDGs 이행 주류화를 위해서는 범정부적 의제로서 통합적 접근과 정책적 일관성 제고를 위해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경제발전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포괄하는 새로운 국제사회의 발전목표가 수립됨에 따라 SDGs와 국내 ODA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년)을 수립함.
-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은 재원확대 목표 및 유·무상, 양자·다자 원조비율, 전반적인 재원 운용계획, 주요 추진과제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매년 기관별 시행계획을 수립·점검하는 추진체제를 갖추.

■ HLM 공식 성명에서 SDGs 달성을 위해 다양한 개발협력 주체들의 파트너십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OECD 차원에서 추진하는 SDGs 이행을 위한 주류화 작업에 대응하여 국내 SDGs 이행 및 주류화를 위한 체제를 마련해나가야 함.

- HLM 회의에서는 DAC이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을 살려 SDGs 이행을 위한 동료 검토, 정책일관성 확보를 위

한 가이드라인 제시, 개발효과성 제고, 개발재원 조성 및 통계보고 등 위원회가 가진 기존의 강점을 활용할 것을 표명

- 우리나라는 개발협력 4대 구상(표 3 참고) 등 SDGs 달성을 위한 본격적인 이행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바, 각 부처는 연도별 ODA 시행계획을 통해 정합성 있는 정책을 실시해야 함.
- 우선 국제기구 기여금 지원 및 민간재원 연계를 통해 전략목표에 부합하는 재원조달 계획을 수립하고, SDGs 이행을 위한 범정부적 추진기구를 운용해나가야 함.
- 사업 분야와 직접 관련된 몇 개의 부처를 제외하고 개발협력사업 전반의 주류화를 통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도모하기에는 전 국민적 홍보와 활용방안이 부족한 실정임.
- 따라서 SDGs 이행과 관련하여 DAC 회원국과 경험을 공유하면서 2020년까지 해당 목표를 꾸준히 달성할 수 있도록 범부처간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고, 개발협력 4대 구상과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조정 및 범정부 차원의 정책일관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협의채널을 강화해야 할 것임.

표 3. SDGs 관련 개발협력 4대 구상 시범국가 도입 및 거점국가 확산 계획(2016~20년)

번호	4대 구상	시범 국가	거점 국가	중점 지원분야
1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네팔,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모잠비크	교육 보건 미래역량
2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가나, 에티오피아, 페루	예방접종 국가실험실 체계 구축 역량강화
3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네팔,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페루	역량강화 인력양성 인프라구축
4	아프리카 직업기술교육 및 ICT 활용 교육혁신	우간다	르완다, 케냐, 나미비아, 보츠와나, 에티오피아	교육과정 개발 교육전문가 양성 교육여건 개선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6), 제24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안건, 제24-1호, 「개발협력 4대 구상 이행 마스터플랜(안)」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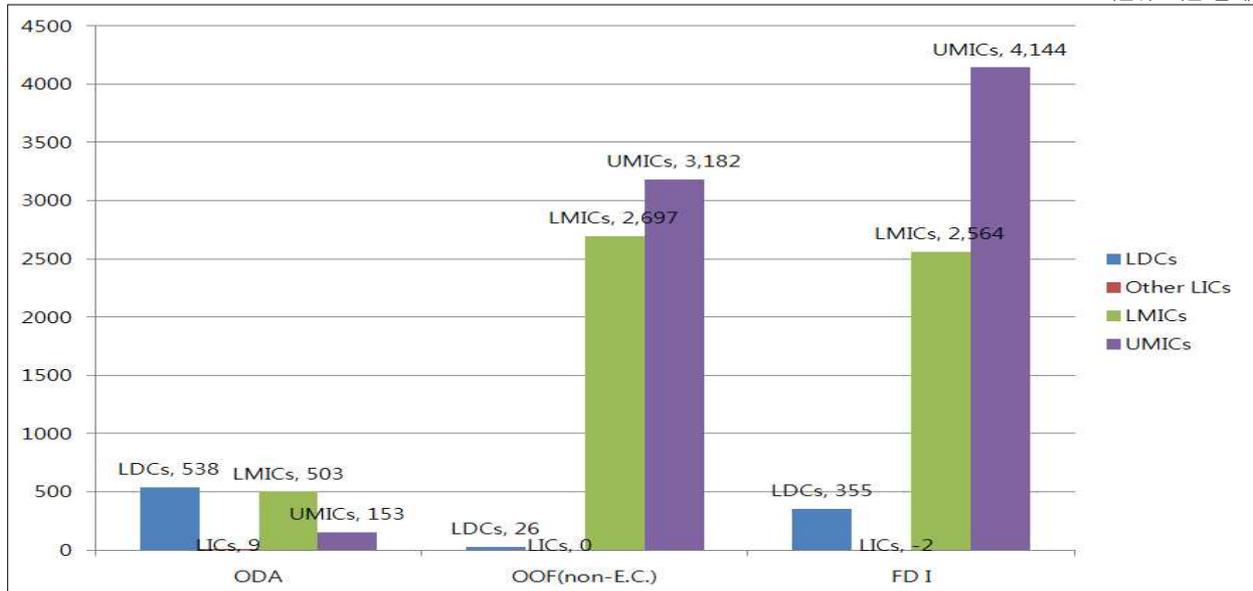
■ 또한 SDGs가 강조하는 사회적·경제적 개발과 환경적 지속가능성, 평화안보의 강화는 개도국의 빈곤퇴치를 위해 기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요소임을 공감하며, 그간 상대적으로 중시되지 않았던 환경 및 평화 안보문제에 대한 적극적 개선 노력 필요

- HLM 공식 성명에서는 평화안보에 관한 ODA 통계보고 지침을 개정하고, 난민지원에 대한 국내 지출비용을 공여국이 일관되게 보고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찾기로 합의함.
- 국내에서는 공여국 내 난민지원 비용을 별도로 보고하지 않으므로, 이번 논의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전 세계적으로 평화안보 및 난민 이슈가 주목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의견표명이 필요
- 특히 분쟁 및 자연재해 등으로 최근 피해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2016년 5월 제1차 세계인도지원정상회의(World Humanitarian Summit)가 개최될 예정이므로,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한국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해나가야 할 것임.

- HLM 공식 성명은 ODA 현대화 논의의 기본 원칙을 공표하고, 무상원조 이외의 다양한 금융수단을 증여등가액(grant-equivalent, 즉 ODA 인정액)으로 계상하기로 결정한바, 지원대상국가의 소득수준 및 활용방안에 따른 ODA와 민간재원 확보전략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시점임.
- 현재의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은 ODA의 지역별, 소득그룹별, 분야별, 형태별 자원배분 방향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구체적 전략목표에 대한 예산 할당은 고려하지 않음.
 - 예를 들어, 다양한 기관과 민간의 참여를 위해 제한적으로 무상·유상 원조 집행기관을 중심으로 한 정부부처 제안 사업, 공공협력사업, 시장재원 활용촉진 방안(예: 해외진출기업 금융지원제도) 등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개도국에의 민간재원 유입 촉진을 위한 전략적 ODA 지원규모와 범위 등은 명시하지 않음.
 - 따라서 현재 HLM에서 논의 중인 총공적개발지원(TOSSD)의 양적 확대로 국제개발협력 논의의 저변을 확대하지는 못하였음.
- 민간 파트너십 다원화 및 포용적 비즈니스모델 확산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재정지원 계획이 마련되어야 함.
 - 특히 다양한 개발협력 주체간 포용적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부산글로벌파트너십(GPEDC)을 활용하여 민간의 참여를 확대해야 함.

그림 5. 한국의 수원국 소득수준별 개발재원 지원 현황(2014년)

(단위: 백만 달러)



주: 총 지출액, 2013 constant price 기준.

자료: OECD CRS 데이터베이스(stats.oecd.org, 검색일: 2016. 3. 5)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2014년 한국의 수원국 소득수준별 개발재원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그림 5참고), ODA는 최빈국(LDCs)과 하위중소득국(LMICs)에 집중 지원된 반면에, 기타공적자금(OOF)이나 해외직접투자(FDI) 등 민간재원은 상위중소득국(UMIC)과 하위중소득국(LMICs)에 지원되고 있음.
- ODA의 수요가 높은 최빈국 등에 대한 원조는 지속 확대하고, 지원규모에 대한 공약으로 제시한 2020년까지 GNI 대비 0.2%, 2030년까지 GNI 대비 0.3% 달성 목표를 실현해야 함.
-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총공적개발지원(TOSSD)은 기존 ODA 확대공약을 준수하면서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재원이라는 점을 DAC 회원국 공동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최빈국에는 기존 ODA 지원방식을 확대하는 한편, 민간재원 수요가 높은 중소득국에는 ODA를 활용한 민간금융수단(PSI)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이와 같은 논의는 국제 금융시장에 참여하는 전문 개발금융기관(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s)이나 보증(guarantee) 지원을 위한 자금운용의 법적근거 마련 등 개발협력 규모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동반되어야 함.

KIEP